

한산·노량의 이순신은?...임진왜란 완결편 “Q”

명량대첩 이전·이후 전쟁사 조명 2편 동시 촬영해 순차 개봉키로 젊은 이순신 누가 맡을지도 관심



1700만 영화 '명량'의 후속편이 '한산'과 '노량', 2부작으로 제작된다. 두 영화는 동시 촬영해 순차 개봉하는 방식으로 관객에 공개된다. 사진은 '명량'의 한 장면.

이순신 장군의 극적인 전쟁 승리를 그려 1761만 관객을 모은 영화 '명량'의 후속편이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명량'의 연출과 제작을 맡은 김한민 감독은 최근 '한산' '노량'으로 이뤄진 2부작을 동시 촬영해 순차 개봉하는 방식을 선택, 배우 캐스팅 작업을 시작했다.

'명량'은 2014년 개봉해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운 흥행작이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룬 해전 승리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구현해 그야말로 '광복' 흥행에 성공했다.

후속 시리즈인 '한산'과 '노량'은 '명량'이 다룬 1597년 명량대첩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이순신 장군의 전쟁사를 그린다. '명량' 개봉 당시 김한민 감독은

이른바 '이순신 3부작' 구상을 공개하면서 "시기적으로 한산, 명량, 노량으로 이어진 해전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며 "'명량'으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 속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한민 감독은 이듬해인 2015년 '명량'에 출연한 배우들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전남 진도 울돌목까지 450km에 이르는 조선 수군 재건로를 직접 걷고 이를

촬영해 다큐멘터리 영화 '명량:회오리바다를 향하여'로 만들어 공개하는 등 관심을 이어갔다.

'한산' '노량'을 동시에 촬영해 순차 개봉하는 방식도 눈길을 끈다. 앞서 김용화 감독이 '신과함께'로 처음 도전해 성공을 거둔 제작 모델이 이어받아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제작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제작진은 내년 촬영을 목표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인공 이순신 역을 어떤 배우가 맡을지 여부에도 관심의 시선이 향한다. '명량'의 최민식은 출연하지 않는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3일 "제작진이 최근 배우 캐스팅을 작업을 시작했다"며 "'명량'보다 앞선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 만큼 젊은 이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감독과 여러 번 호흡을 맞춘 40대 배우가 주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범죄액션 '악질경찰' 굳이 세월호 차용 왜?

시사회서 터져나온 불편한 의문

'악질경찰'이 세월호 참사를 소재 삼은 첫 상업영화로 베일을 벗었다. 노골적인 소재 활용과 직접적인 장면 연출을 감행한 영화는 왜 굳이 세월호 참사를 끌어와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악질경찰'(제작 청년필름) 시사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왜 세월호인가"라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물론 급기의 소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긴 가슴 아픈 사건을 범죄액션 장르로 차용하는 방식이 불편함을 안긴 탓이다. 세월호 환기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일련의 지적에 이정범 감독은 "똑바로 만들고 싶었다"며 "매일 자기검열을 하면서 만든 영화"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2015년 단원고를 찾아가 받은 충격이 이 영화를 만든 시작"이라고 소개했다.

"세월호 소재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많았고 투자나 배우 캐스팅도 힘들었다"는 이정범 감독은 "주변의 반대와 만류에도 이걸(세월호 소재)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상업영화 소재로 녹여 넣는 과정에서 택한 '악질경찰'의 방식에 과연 관객이 얼마나 동의할지 알 수 없다. 범죄 사주도 서슴지 않는 악한 경찰(이선균), 거약으로 묘사되는 재계 1위 재벌 총수(그 하수인(박해준)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소녀(전소니)가 뒤섞여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

이정범 감독은 "상업영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놓칠 수 없었다"고 토로하면서 "침묵하는 것보다 공론화하고 담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도 밝혔다. 감독의 판단은 20일 영화 개봉 뒤 관객이 내놓는 평가로 판가름 난다.

이해리 기자

암초 만난 박봄

싱글 내고 솔로활동 시작했지만 승리 사건 불거져 '마약' 불뚱만

8년 만에 솔로 가수로 나서는 걸그룹 투에니원 출신 박봄이 암초를 만났다. 2016년 그룹 해체 이후 3년 만에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과거 자신을 둘러싼 '마약 밀수 의혹'이 다시 불거져 끊임 없는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봄은 13일 오후 싱글 '봄(Spring)'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2014년 마약류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박봄은 2010년 국제특수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을 함유한 약품 에터럴을 반입하려 해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됐다.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선배 가수 승리가 최근 성접대와 마약 등 갖은 의혹에 휩싸이면서 2010년 상황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모발과 소변에 대한 경찰의 마약류 분석 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관련 의혹에서는 벗어났다.

이에 대해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은 13일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은 뒤 활동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마약 밀수'나 '밀반입' 등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그가 명백히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에터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미국 FDA가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유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박봄이 에터럴을 복용하려 했던 것은 ADD(주의력결핍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도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 비슷한 합법적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아름 있고 새 출발!" 가수 박봄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뉴스

#해시태그 컷



쌤쌤녀?

마치 '쌤'타는 사이처럼 묘하다. 방송인 김영철과 황보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김영철은 "어제 저녁! 황보랑 단둘(?)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둘의 옷뿐만 아니라 쇼파 등등 색이 매치가 잘돼서"라고 썼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황보와 노란색 니트를 입은 김영철의 컬러 조화가 눈에 띈다.

#스포츠투아 #김영철 #황보 #둘이서 #묘한분위기

1일1식 준호 '캐릭터 만들기'

tvN '자백' 심약한 변호사역 매일 자전거 타며 체중 감량



준호

그룹 2PM 멤버인 연기자 준호가 신작 캐릭터 만들기 공을 들이고 있다.

준호는 23일 첫 방송하는 tvN 토일드라마 '자백'에서 변호사역을 맡고 이를 연기하기 위해 조력자를 찾았다. 과거 변호사로 활동했던 지인의 조언을 얻고,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만났다.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대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낯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외적 이미지 변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사형수 아버지를 위해 치열한 끝에 변호사가 되는 설정의 극적인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몸매에 심약한 인상, 불치병인 심장질환으로 소년기 생활을 거의 병원에서 보낸 힘겨움'이라는 임희철 작가의 캐릭터 설명에 따라 육체적인 고통을 몸으로 드러내기 위해 가장 먼저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한창 촬영 중인 상황에서도 매일 1일1식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하루 30분씩 자전거 타기로 운동을 대신에 하는 일과를 빼먹지 않고 있다.

준호의 이 같은 치열한 캐릭터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드라마 '김과장'과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출연할 때에도 다이어트를 기본으로 시도했다. 특히 '김과장' 속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의 인물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최대한 줄이고 외출까지 자제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준호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외적인 이미지로 이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준호의 평소 예민하고 매사에 철저한 성격이 그가 연기에 몰입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인도영·김희조 기자